

정세운 “애매한 수식어? 이것저것 다 해봐야죠”

싱어송라이터·아이돌 정체성 고민
‘싱어송라이더’ 새 영역으로 소속감
“모든 색 무기로 만들면 내 장점 돼”

가수 정세운(26)은 유연하다. 싱어송라이터와 아이돌 사이 어딘가에서 고민하던 시기도 있었다. 맞춤법이 틀린 글자를 쓰면 빨간 밑줄이 생기듯이, ‘싱어송라이더’로서 어딘가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피하기보다 부딪혔고, 자신의 장점을 적재적소에 꺼내놓는 법을 터득했다. 새로운 하나의 맞춤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비로소 그에게 장애물이 아닌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징검다리 가 됐다.

정세운은 이번에도 직접 작업한 곡들로 앨범을 채웠다. 여섯 번째 미니앨범 ‘퀴즈(Quiz)’에는 세상을 향해 던진 질문들로 가득 찼다. 총 8곡에는 그가 탐구한 세상과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다. “답을 찾기 위한 앨범이라기 보다 답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답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저는 어떤 것 하나에 꽂히면 깊게 파고들거든요. 뭐가 좋은지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해요. 도달했던 생각은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동명의 타이틀곡 ‘퀴즈’에서 정세운은 남들이 만든 보기에는 답이 없다고 한다. 편견 속에 자신을 가둘 수 없고, 답은 다양하다고 말한다. 평소 존경하던 아티스트 선우정아와 공동 작사, 작곡했다.

“선우정아 님과는 사소한 접점들이 있었어요. 제가 데뷔 때부터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고,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만나기도 했죠. 제가 앨범(Mnet) ‘프로듀스 101’에 나왔을 때도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고 나이가 많은가 생각도 하셨다고 해요. 선우정아 님의 ‘버팔로’(2021)라는 곡에 제가 피쳐링을 하면서 언젠가 자신을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용권을 아껴두고 아껴두다가 이번 앨범 작업을 제안했어요.”(웃음)

작업을 시작하면서 먼저 5~6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것부터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신뢰를 쌓았다. 싱어송라이터와 아이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싱어송라이더’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까지 도달하며 바로 영감이 떠올랐다. 그렇게 정세운의 소회

는 청량하면서도 듣기 편안한 미디엄 팝 스타일의 곡으로 탄생했다. “이 곡이 타이틀이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기존에 냈던 곡들과 비교해 보자면 통통 튀고 아이돌적인 댄스 음악에 가까웠거든요. 회사에서 이 곡이 좋다고 해서 의외였지만 기본 좋고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2번 트랙 ‘싱어송라이더’로 이어진다. 제목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런 수식어로 노래를 쓰게 될 줄 몰랐다. 가사를 틀어놓는 한 적도 있는데 너무 안 풀리더라”라며 “싱어송라이더로 다시 한번 써보니까 잘 맞아떨어지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렘했다”고 했다.

정세운은 가사에서 아이들을 ‘뺨한 노란색’, 싱어송라이터를 ‘묘한 보라색’으로 표현했다. 때에 따라 두 색깔의 농도를 조절하거나 적절히 섞어 갈색이 된다고 했다. “뺨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고 비유한 것이 눈길을 끈다. “개인적으로는 검은색을 좋아하거든요. 검은색을 좋아하는 마음을 잠깐 숨기고 노란색도 보여주고 필요할 땐 보라색을 보여줘야 하죠. 직업상 장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색을 무기로 만들면 나에게 좋은 거죠.”

결국 고민의 지점이었던 ‘싱어송라이더’는 정세운에게 고마운 수식어가 됐다. “나쁘게 생각하면 애매한 걸 수도 있지 않나. 싱어송라이터 속에서 아이돌이고, 아이돌 사이에 가면 싱어송라이터니까”라며 “이런 수식어가 생기면서 내가 속할 수 있는 곳이 생긴 것 같다”고 만족했다.

“제가 고민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이것도 저것도 해보면서 결국 좋은 게 많았어요. 주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에서 확실하게 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분명 답안은 있겠죠. 잘 피해야 해요.”

직접 곡을 쓰면서 한 곳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한다. 미국 얼터너티브 팝 밴드 밴드 ‘나이트리(Nightly)’와 협업한 ‘샤피(Sharpie)’가 그 증거다. 피지컬 앨범에 정식 수록되지 못했지만, 꼭 넣고 싶은 바람에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만 공개하게 됐다. “해의 아티스트와 협업이 이번이 처음이예요. 앨범에 꼭 넣고 싶었던 이유도 처음 시도하는 것



들, 톡톡 튀는 음악을 담고 싶어서였죠. 그쪽에 믹스와 마스터링을 맡겼어요. 제 목소리를 갖고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작업해나가는지도 궁금했거든요. 해외 시장 겨냥까지 아니지만 스스로 음악적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한층 더 성장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음악 공부를 하며 영어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다. 장비부터 화성학적 지식, 좋아하는 뮤지션의 인터뷰나 작업 일지 등 모두 영어가 필수였다. 2년 정도 익히면서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다. 이번 앨범에 영어로만 된 가사를 직접 쓰기도 했다. “샤피”도 영어 가사, “글로우 인 더 쇼(Glow in the show)”도 영어로 불러봤어요. 제가 그

고 결과물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도움을 받긴 했죠. 언젠가는 혼자서 영어 가사를 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예요.”(웃음)

데뷔 7년 차가 된 현재는 많은 고민들이 정리됐고 방향성이 정해졌다. 뚜렷하고 원대한 목표보다 후회되지 않는 하루를 사는 것이 우선이다. 군대 다녀온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정도로 긴 군복, 아티스트라면 욕심내는 정규 앨범이 적은 것 등도 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음악을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 직업이예요. 트렌드도 바뀌고 연습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실력도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대신 조금 더 빠르게 템포감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김태리 ‘정년이’ 놓치고 MBC 올해는 절치부심

MBC가 ‘드라마 왕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힘을 쏟는다. 최고 기대작으로 꼽힌 김태리 주연 ‘정년이’ 편성이 불발되면서 낙심이 컸다. 김남주(52)를 비롯해 이제훈(39), 김희선(46), 한석규(59) 주연 드라마를 잇따라 편성, 금토극 라인업을 탄탄히 구축했다. 지난해 남궁민 주연 ‘연인’이 유일하게 흥행했는데, 올해는 절치부심 드라마 왕국 재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정년이는 제2의 ‘웃소매 붉은 굵동’(2021) 신화를 기대하며 준비한 작품이다. 정지인 PD가 웃소매에 이어 연출을 맡았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소리 하나는 타고난 ‘윤정년’(김태리)의 여성극단 입성과 성장기를 그렸다. 동명 네이버웹툰이 원작이다. 당초 MBC에 편성됐으나, tvN으로 바뀌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MBC가 CJ ENM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까지 퍼졌다.

한 관계자는 “정년이는 MBC에서 편성을 확정된 상태였다”며 “MBC가 회당 20억원 이상을 추가로 했으나, tvN에서 더 큰 금액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망가뜨렸다”며 “앞으로 스튜디오드래곤과 작업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소송까지 검토한 이유”라고 짚었다.

신현창 MBC 드라마국장은 법적대응설을 부인하면서도 제작사에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정년이는 스튜디오드래곤과 네이버웹툰, 자회사 스튜디오X, 엔피오엔터테인먼트가 제작했다. 김태리 소속사 매니지먼트mmmm도 공동 제작사로 이름을 올렸다. 신 국장은 지난해 뉴시스에 정년이 편성 불발 관련 “마음 같지 않다”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튜디오드래곤과는 상관없다”면서도 “저희가 오래 준비했다. 1년 남짓 극본 작업을 하고, 인원도 투입해서 했으니까. 제작사와 문제가 남아있다. 법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MBC 드라마는 상승 기세를 탔다. 연인에 이어 이세영 주연 금토극 ‘열녀박씨 계약결혼단’이 최고 시청률 9%대(닐슨코리아 전국기준)까지 찍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룹 ‘아스트로’ 차은우 주연 ‘오늘도 사랑스럽개’는 수요일로 주 1회 편성됐으나, 빛을 보지 못했다. 2022년 12월 ‘일당백집사’ 이후 수목극을 폐지, 1년 여 만에 선보였지만 시청률 1%대 초반을 내렸다. 아직까지 수요일 재계 예정은 없으며, 금토극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이미 상반기 라인업을 완성한 상태다. 12월 오후 9시50분 첫 방송하는 이하니 주연 ‘뱀에 피는 꽃’을 시작으로 김남주·차은우 ‘윈더볼 월드’, 이제훈 ‘수사반장 1958’, 김희선 ‘우리집’, 한석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시청자를 찾을 예정이다.

수사반장은 2년 여간 공들였다. MBC 히트작 ‘수사반장’(1971~1984·1985~1989) 프리퀄이다. 최불암이 연기한 형사 ‘박영환’ 반장의 청년 시절을 그렸다. 초반에 캐스팅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훈이 출연을 확정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빈센조’(2021) 박재범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 신예 김영민 작가와 함께 집필했다. 박 작가는 초반 극본을 뒤엎고 다시 쓰는 등 애정을 쏟았다는 후문이다.

우리집은 우여곡절 끝에 MBC에 편성됐다. 심리상담가 ‘노영원’(김희선이 추리작가인 시어머니 ‘홍사강’(이혜영)과 행복한 가정을 위협하는 사건을 마주한 뒤 공조하는 이야기다. 원래 제목은 ‘가스라이팅’이다. 지난해 하반기 방송 예정이었으나, 5회 가량 촬영 후 중단됐다. 제작사가 jpx스튜디오에서 레드라인픽처스로 바뀐 뒤 수개월간 재검토 작업을 거쳤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촬영이 다시 시작됐다”며 “제작이 무산될 뻔했으나, MBC에 편성 돼 다행”이라고 했다.



세븐틴·뉴진스, ‘제38회 골든디스크’ 주인공

대세 그룹 ‘세븐틴’(SVT)과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with 만다리’ 주인공이 됐다.

세븐틴과 뉴진스는 6일 오후(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각각 음반 대상과 음원 대상을 차지했다.

‘골든디스크’ 어워드 음반 대상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독식해왔다. 세븐틴은 지난해 역대 K팝 음반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미니 10집 ‘FML’로 데뷔 9년 만에 음반 대상을 받았다.

십자인대파열 부상으로 재활 중임에도 시상식에 참석한 세븐틴 총괄 리더 에스쿱스는 “저희가 10년차가 됐다. 지치지 않고 달려와준 멤버들에게 우선 고맙다. 부상으로 불참한 멤버 정한이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플래디스 식구 분들이 고생하셨다”고 전했다. 여기에 세븐틴은 음반 본상, 디지털 음원까지 3관왕을 안았다. 유닛 ‘부석순’의 음원 본상까지 4관왕을 안았다.

방탄소년단 정국, 캐럴 시즌 끝나자 英 오피셜 메인차트 재진입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팜스타 정국이 캐럴 시즌이 끝나자마자 영국 오피셜 메인 차트에 재진입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엔믹스 미니 2집에 영케이·이스란 등 참여

수목극 ‘런 포 로지스’·‘봄’ 작업

그룹 ‘엔믹스(NMIXX)’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에프이스리오포: 브레이크(FE304: BREAK)’에 밴드 ‘데이식스’ 영케이, 작사가 이스란, 작곡가 라이언전 등이 힘을 실었다.

6일 엔믹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케이와 이스란은 오는 15일 오후 6시 발매되는 ‘에프이스리오포: 브레이크’ 수록곡 ‘런 포 로지스(Run For Roses)’ 노랫말을 지었다.

영케이는 지난해 여주행 열풍을 일으킨 그룹 ‘하이킴’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잠미’(건사

‘스탠딩 넥스트 투 유’ 싱글 톱100 56위

5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정국의 첫 솔로 앨범 ‘골든(GOLDEN)’의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SNTY)는 이번 주 오피셜 싱글 톱 100(5~11일)에서 56위로 다시 들어왔다. 총 8주간 진입이다.

K팝 솔로곡 중 해당 차트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곡의 주인공 역시 정국이다. 그의 첫 공식 솔로곡 ‘세븐’은 해당 차트에 14주간 머물렀다. ‘골든’도 이번 주 오피셜 앨범 톱100에 91위

로 재진입하며 역시 총 8주간 머물렀다. 해당 차트 K팝 솔로 최장 진입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이 차트에 가장 머문 앨범은 정국이 속한 방탄소년단의 미니 6집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다. 19주간 머물렀다.

정국을 포함해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 모두 군 복무 중이다. 그럼에도 오피셜 차트뿐 아니라 미국 빌보드 등 군복기에도 팝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피장)을 작사해 주목 받았다. 이스란은 ‘트와이스’ 나연 솔로곡 ‘팝!’, ‘방탄소년단’(BTS) 앨범에 실린 지민의 솔로곡 ‘필터’ 등의 가사를 썼다.

특히 영케이는 전날 유튜브 채널 ‘잇츠 라이브(it's Live)’에 게재된 엔믹스 라이브 영상 무대에 함께 해 ‘JYP 선후배 우정’을 자랑했다.

또 ‘아이브’의 히트곡을 다수 만든 라이언전은 이번 앨범에 실린 ‘봄(BOOM)’의 작곡과 편곡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이번 엔믹스의 앨범엔 타이틀곡 ‘대시(DASH)’를 포함해 총 7곡이 실린다.

